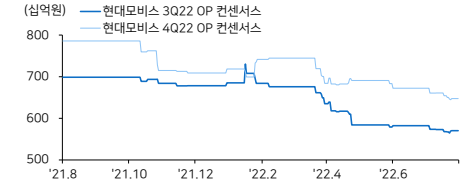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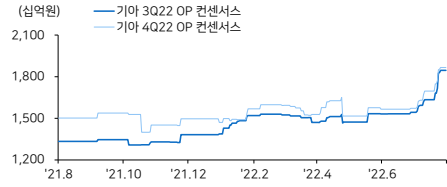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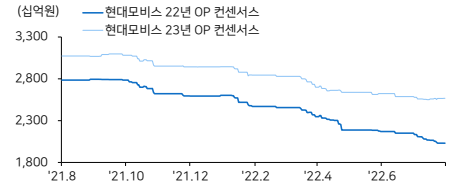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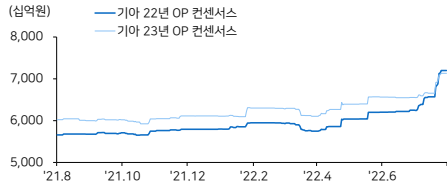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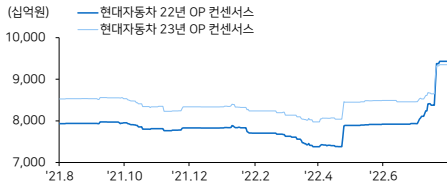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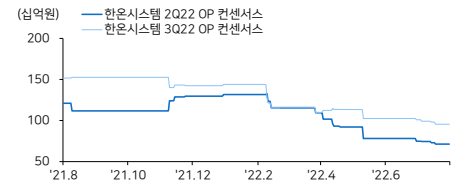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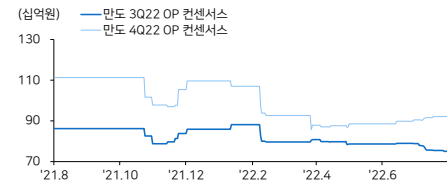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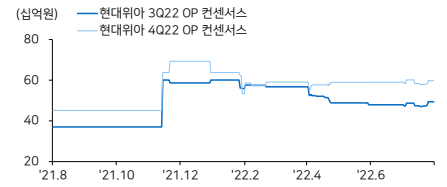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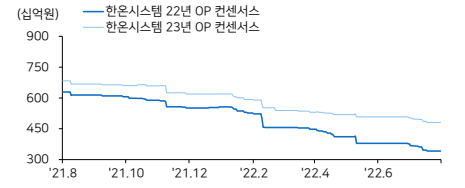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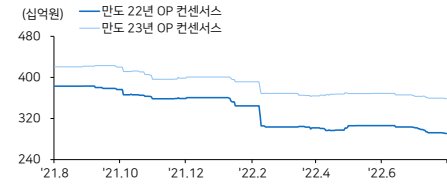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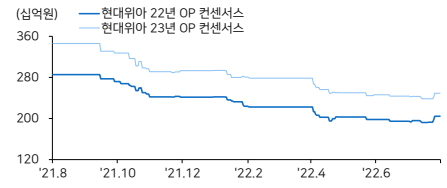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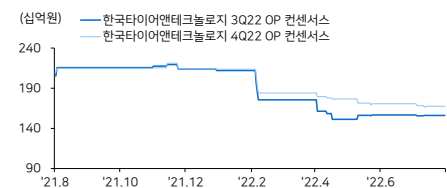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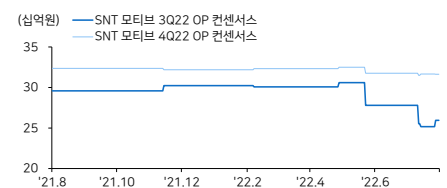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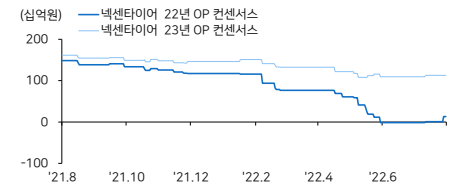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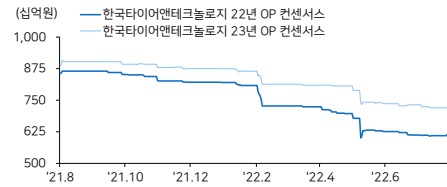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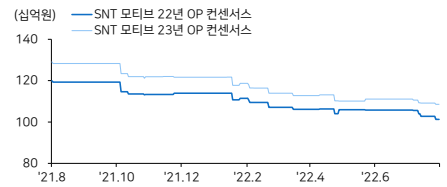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정예 개발자들로 스타트업에 모아 '미래 SW' 육인 (조선일보)

현대차는 최근 인수한 스타트업 '포티투'를 SW 개발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 키우기로 하면서 현대차 인력을 포티투에 보내는 방안을 고려. 하지만 조직 개편 대상이 된 현대차 그룹 일부 직원들은 일부 반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https://bit.ly/3duVE3i>

로봇 힘쓰는 현대차... 미래 투자자 만든다 (매일경제)

현대차가 4억달러를 투입하고 외부에서도 4억달러를 유치해 로봇 연구소와 글로벌 로봇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VC)을 미국 보스턴에 설립할 계획. 현지 벤처 지분투자와 경영권 인수 등 로보틱스 시장 공략을 위한 행보가 풀리.
<https://bit.ly/3AvhQPW>

Toyota's Jack Hollis expects 'one more year' of historically tight inventories (Automotive News)

토요타는 미국 자동차 소매 재고 수준이 최소 3Q23까지 증가할 수 없으며 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힘. 여전히 수요가 완전자 업체 생산능력을 상회하며 향후 1년 내 재고 증가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
<https://bit.ly/3T2JHIG>

Geely Auto report first half 2022 results, pure EV sales surge 520% (electrek)

Geely의 BEV 판매는 1H22 yoy +520% 성장한 85,820대를 기록. 전체 판매량은 2.6% 감소, 매출액은 23.1% 증가. 원자재 가격 영향으로 순이익은 34.8% 감소함. 수출량이 64% 증가한 87,628대로 해외 수요가 강세를 보인 점이 주목.
<https://bit.ly/3weglff>

모듈·부품' 생산전문 자회사 신설하는 현대모비스, 왜? (뉴스1)

현대모비스가 모듈과 부품 제조부문 자회사 2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 사업 재편에 나섬. 이번 자회사 신설로 불법 파견 리스크 해소 가능성과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 가능성이 제기됨.
<https://bit.ly/3CoOmIG>

13조 투자 현대차에 "실망시키지 않겠다"던 바이든, 석달만에 변심 (머니투데이)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내 조립 자동차로 제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를 계기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중.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105억달러보다 더 많은 자금 투자 필요성이 높아짐.
<https://bit.ly/3waleQw>

Tesla (TSLA) confirms plan to launch electricity retail business in Texas (electrek)

Tesla는 작년 전력소매업을 위해 Tesla Energy Ventures라는 회사를 설립, 이후 텍사스의 Powerwall 소유자와 VPP(가상발전소) 임시사업을 시작함. 최근 채용공고를 통해 Texas 지역의 전력소매업 사업 진행을 계획 중.
<https://bit.ly/3QKkodu>

Tesla manages to cut delivery times in China after upgrading Gigafactory Shanghai (electrek)

Tesla 상해 기가팩토리의 생산능력 확장 이후 Model3 및 ModelY 배송 시간이 8~24주에서 4~8주로 단축되었다고 밝힘. Tesla EV는 여전히 초과수요 상태이며, 최근 배로그를 줄이기 위해 일부 모델 신규 주문을 중단한 바 있음.
<https://bit.ly/3QC2Vx5>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